

신경윤리 관점으로 본 여성시의 촉각*

정진경(부경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정서적 기계화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 2. 촉각 이미지에 나타난 신경윤리 양상과 의미 | 4) 자기통제상실의 강박장애 스펙트럼 질환 |
| 1) 고통주관성의 신체통합성장애 | 3. 결론 |
| 2) 자기기만의 신체이형장애 | |

1. 서론

21세기 촉각의 개념은 신경과학 분야가 발달되면서 피부가 아니라 뇌로 해석되고 이해된다.¹⁾ 신경생리학(Neurophysiology)에서 촉각은 뇌와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수억 개의 신경섬유와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 살갗의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뿐 아니라,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살갗의 내부까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1847).

1) 최은아, 「감각의 문화사 연구-촉각」, 『카프카 연구』 19, 한국카프카학회, 2008, 165면.

관련되어 있다.²⁾ 신경생리학과 촉각의 관련성은 촉각을 단순한 감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피부 내 신경세포와 내장에 분포되어 있는 말초신경은 온도나 압력 등 외부 자극뿐 아니라, 신체현상이나 심리 상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체 내부의 화학물질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감정 조절 기능과 관련³⁾이 있다. 촉각의식은 감각 그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심리 상태에 따라 촉각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메를로 폰티는 촉각을 '신경생리학과 심리학 사이의 존재론'⁴⁾이라고 한다.

감정 상태에 따라 왜곡되고, 조작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신경현상에 주목한 것이 신경윤리(neuroethics)이다. 신경윤리는 신경과학과 윤리학을 융합한 것으로, 촉각의 범주에 속한다. 신경윤리학자들은 신경세포나 말초신경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물질이나 메커니즘이 감정을 전제⁵⁾ 작동하기 때문에 신체의 촉각 현상이나 증세를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시사에서는 촉각을 신체의 감각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촉각은 대체로 시의 감각 연구⁶⁾나 섹슈얼리티⁷⁾ 등을 연구할 때 일부 언급되는 정도이다. 여태천은 감각으로서의 촉각이 외부 현실 수용과 감정의 의미 작용을 표현한다고 한다.⁸⁾ 그리고 박한라는 촉각을 행위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한 감각의 전이로 본다. 이들 논자들의 시각은 촉각을 특징적인 의식으로 보지 않는다. 촉각을 어떤 의식으로 나아가거나 시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매개 기능을 가진 감각으로만 보고 있다. 섹슈얼리티 연구에서 촉각은 좀 더 특성적인 것으로 규정 된다. 함돈균은 섹슈얼리티의 접촉을 타자에

2) 데릭 홀, 김윤택·서주현 옮김, 『인간의 몸』, 예코, 2007, 63면.

3) 미나토 지히로, 김경주·이종욱 옮김, 『생각하는 피부-촉각문화론』, 논형, 2014, 18-21면.

4)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137면.

5) 이길우, 『현상학의 감정윤리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8, 한국현상학회, 1996, 8, 144면.

6) 여태천, 「정지용 시어의 감각과 주체의 욕망」, 『한국 문화와 저널』, 한국어 국제 학술 포럼, 2004.

박한라, 「김경주 시에 나타난 감각 운용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7.

7) 함돈균, 「권태의 섹슈얼리티, 불모성의 시 쓰기」, 『시작』 16(2), 천년의 시작, 2007.

8) 여태천, 앞의 논문, 73면.

대한 경계의식으로 해석한다. 이 해석은 촉각이 ‘나’와 ‘타자’를 전제로 하는 의식임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최초 촉각의 관점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이 서안나⁹⁾의 논문이다. 촉각의 개념을 메를로 폰티의 ‘살’의 범주로 규정하면서 시에서의 촉각이 갖는 기능적 효과와 운용 방식을 연구했다. 하지만 의미 해석이 ‘살’의 범주에 한정되어 있어 기존의 촉각이 가지고 있는 시적 의식의 확대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논자들의 논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촉각은 타자와의 경계의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자들의 시각은 촉각을 감각적 차원의 기능으로만 해석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촉각 이미지에 내포되어 있는 시적 세계관이나 의식을 확대, 심화하는 데로 연결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러한 논자들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촉각을 광의의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연구한 것이 시의 촉각 이미지를 신체현상학과 신경생리학을 융합하여 살펴본 것이다.¹⁰⁾ 촉각을 광의의 의미에서 살펴보는 이 연구에서 정진경은 촉각의식이나 촉각 증세가 단순한 감각 현상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 속에서 표출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촉각 이미지를 촉각만의 특징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 또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80년대 이후 여성시인들 시에서 많이 보이는 자학적이고 가학적인 촉각 이미지는 촉각만의 특징으로만 해석할 때 더 많은 시적 의식을 도출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런 촉각 현상은 80년대 이전 시의 촉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났던 모성적인 친밀함을 표시하는 감성학이나 남성지배담론에 호응을 하는 사랑의 윤리학¹¹⁾과는 다른 측면이다. 남성 타자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9) 서안나, 「백석 시에 나타난 감각에 관한 연구-촉각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2, 한국시학회, 2015.

10) 정진경, 「현대시에 나타난 촉각 이미지 연구」,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문학회, 2018, 5.

11) 김남이, 「촉각의 현상학과 이리가래의 여성주체성」, 『여성 이론』 31, 도서출판 억이년, 2014, 11, 118-138면.

부정의식이 촉각 이미지로 나타난 것¹²⁾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 여성시에서 이런 부정적인 촉각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80·90년대 활발했던 페미니즘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페미니즘의 유행은 여성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그것을 전복하려는 의지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비주체로 살아온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남성과 동일한 주체성을 가지려는 여성들의 인식은 억압된 여성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각 과정의 현실 인식이나 심리적 분노 혹은 의도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의 거부가 여성시인들에게서 부정적인 촉각 이미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심리적 균열과 모순을 두고,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남성적 질서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리비도적 욕망의 분출이라 해석하고 있다. 남성지배 체제 내에서 억압된 무의식적 충동이 전복적이고 해체적인¹³⁾ 촉각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 현상과 감각적 증세의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는 신경윤리는 이들 여성시인들의 의식을 살펴보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80년대 이후 여성시인들 시에 나타나는 촉각 이미지¹⁴⁾를 신경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남성 주도적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심리가 만든 감각 현상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촉각 언어를 압축트나 남성 부정의 정치 언어로만 이해되었던

12) 르네 지라르는 제도의 붕괴에는 나쁜 과정의 상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모욕, 구타, 복수와 신경증에서 볼 수 있는 상호성은 서로 대립하면서 획일화를 지향한다. 르네 지라르, 김진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27면 참조.

13)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64-66면 참조.

14) 시의 이미지는 신체적 지각이나 기억, 상상 등에 의해 생긴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다. 한 편의 시에서 언급되는 이미지는 감각이나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내포한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4, 157-173면.)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시의 촉각 이미지 범주는 촉각뿐만 아니라, 촉각의 특질을 가진 대상이나 촉각의 신체 현상이나 심리 증세를 포함해서 다루기로 한다.

것을 넘어서서 여성의 특징적인 정신 병리가 반영된 시적 의식임을 밝혀낼 것이다.

2. 촉각 이미지에 나타난 신경윤리 양상과 의미

협의를 의미에서 촉각은 피부를 중심으로 지각되는, 놀리는 감각인 압각, 아픈 감각인 통각, 차가운 감각인 냉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인 온각 등을 말한다. 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촉각은 외부에서 지각되는 감각만이 아니라, 신경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피부 내부에서 지각되는 감각을 포함한다. 이것은 촉각을 신경생리학(Neurophysiology)의 메커니즘(mechanism)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¹⁵⁾

신경 메커니즘은 감정과 관련이 깊다. 신경윤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신경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되며, 뇌와 상호작용을 한다. 신경세포나 말초신경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물질이나 메커니즘은 감정을 전제로¹⁶⁾ 한다. 촉각이 정서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촉각과 감정과의 관련성은 도덕성과 윤리성까지도 연계가 된다. 신경과학자들이 신경계가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¹⁷⁾ 뇌나 신경계가 손상되면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고의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¹⁸⁾ 심리 상태이든 인체 생체의 파괴든 간에 신경계의 오작동은 사회 도덕성이나 윤리성,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유의지(free will)' 능력과 관련이 있다.¹⁹⁾ 신경윤리는 신경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15) 정진경, 앞의 논문, 175면.

16) 이길우, 앞의 논문, 144면.

17) 닐 레비, 앞의 책, 385면.

18) 위의 책, 17-22면 참조.

19) 이길우, 앞의 논문, 144면.

의식이나 도덕성, 윤리성을 살펴보는 것이다.²⁰⁾ 특히 심리상태에 반응하는 신경체계의 오작동 혹은 왜곡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촉각과 의식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신경윤리의 정신 병리는 내·외부의 촉각과 모두 관련이 있다. 외부적 촉각의 증세로 나타나는 정신 병리는 신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려는 욕망에 시달리는 ‘신체통합정체성장애(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²¹⁾와 절단된 신체가 존재한다는 생각하는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가 있다. 그리고 신체의 내부 촉각으로 나타는 정신 병리는 ‘자유의지’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나 심리적 억압과 강박증에 의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강박장애 스펙트럼 질환’ 등이 있다. 그 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자동증(Automatism), 상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실인증, 감각능력의 상실 등 모두 자율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아 생기는 증세들이 있다. 자동증의 경우 간질 발작으로 인한 뇌의 충격으로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은 때때로 사회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위배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신경윤리 측면의 촉각 증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정신 병리가 만들어내는 감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시인들 시의 촉각 이미지에서 보이는 가학적이나 자학적 촉각들은 이런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다. 여성시인들의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억압된 무의식 혹은 병든 자아가 반영되어 있는 감각일 것으로 보인다. 남성을 주체로 하는 사회로 인한 여성의 고통이나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부정적 자아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통의 주관성, 자기기만, 정서적 기계화, 자기통제상실로 나타나는 촉각의식이나 증세라고 할 수 있다.

20) 닐 레비, 신경인문학 연구회 옮김, 『신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 바다출판사, 2011, 15면.

21) 다이앤 애커먼,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관』, 작가정신, 2004, 153면 참조.

1) 고통주관성의 '신체통합정체성장애'

여성시인들의 시에서 신경윤리 차원의 촉각 중 하나가 심리적인 불안이나 고통이 신체적 고통으로 대치되는 '신체통합성장애'²²⁾의 정신 병리 양상이다. 이것은 신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려는 욕망에 시달리는 심리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신경윤리에 속한다. 심리학자들은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는 욕망을 성적 정신장애의 산물로 보고 있다. 가학적이거나 혹은 자학적인 촉각 감각으로 표출되는 촉각 심리나 증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어려운 현실의 해결이나 마음을 정화하려는 심리인 '고통의 주관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고통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런 심리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감각체계의 보상 심리²³⁾ 일종이다.

여성시인들 시에서도 이런 촉각의 증세는 현실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보상 심리의 표출로 의식화된다. 모체(母體)의 자학적인 고통을 회생양으로 하여 여성의 현실과 실존을 개선하려는 김정란의 시를 보자.

오냐 내 새끼 너를 살려내마//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 지독한 무게, 짊어진 무정형의 덩어리/ 나는 두께의 피부를 저며내
고 뼈다귀를 들어내고/ 그리고 뿌리 뿌리 하고 미친 듯이 파냈다./ 연장이
있을 턱이 있어 직관이라는 갈고리 손뿐이지/ 우아하고 깔끔한 구분의
신사들이/ 에비 저지 하고 말했다/ (난 모른다구, 하고 수많은 빌라도들이
손을 씻었어)/ …(중략)…/ 냄새나는 내 / 육체를 꼭 껴안고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어서 너를 살리리라고 천 번씩 만 번씩 되뇌이며

-김정란, 「여자의 말-존재의 內臟 속으로」 부분²⁴⁾

김정란은 살을 저미고, 파내는 가학적 촉각을 이용해 여성의 현실과 실존을 문제화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절단하려는 시적 여성의 욕망을 신경윤리의

22) 닐 레비, 앞의 책, 16면.

23) 다이앤 애커먼, 앞의 책, 153면 참조.

24) 김정란, 『그 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네』, (주)도서출판 세계사, 1997.

관점에서 보면 ‘신체통합정체성장애’의 증상이다. 이 촉각의 증상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해보려는 제의적 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신경생리학에서도 통증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 요소가 깊이 반영²⁵⁾되어 있다. “죽어서 너를 살리”려고 자신의 “피부를 저며내고 뼈다귀를 들어내”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통증은 자연적으로 순항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자 비판하고자 하는 심리의 등가물이다. 신경생리학으로 볼 때 통증은 피부의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제일 먼저 느껴지고, 다음에는 대뇌피질의 감각영역으로 가서 그 위치와 강도가 지각되는 촉각이다. 통증은 의식이 신체와 일체감을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고통의 현상 중 하나로²⁶⁾ 인체생태가 균형을 잃거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각 자극이다.²⁷⁾ 이런 통증의 의식화는 심리적 실존과 신체적 실존이 조화롭게 영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성의 실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딸의 실존성은 어머니가 가진 가치관과 태도에서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 스스로 현재의 실존성을 차단하지 않으면 딸은 새로운 실존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인체생태를 파괴하는 시적 자아의 촉각 행위에는 “내 새끼”를 살리려는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의식은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려는 ‘고통주관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을 억압하는 “수많은 빌라도”, 즉 여성에게 고행의 삶을 강요하는 남성의 질서로부터 해방되어, 여성의 사회적 실존이 개선되려면 남성들이 만든 생물학적 존재성, 모성적 실존성의 파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재정립해야 딸에게 미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촉각이 유발하는 정서 중 하나가 ‘나’와 ‘타자’와의 관계성²⁸⁾이다. 피부의

25) 위의 책, 163면.

26) 위의 책, 163면 참조.

27) 위의 책, 162면.

28) 알베르트 수스만, 서영숙 옮김,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 2007, 25면 참조.

신경세포를 통해 촉각의 감각으로 전달되는 타자나 세계의 존재성의 인식은 심리적인 호불호에 따라 달라진다. 접촉하는 대상에게 호감을 가지면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된다. 여기서는 주체와 타자가 동일한 존재이다. 시적 여성은 심리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타자화하고, 억압을 가한다. 이것은 남성들에게 길들여져 살아온 자기모멸감이며 정신적 트라우마²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적 촉각 행위는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사랑의 윤리'로 승화된다. 외연적으로는 스스로를 자학하고, 남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랑의 윤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빛나는 칼금/ 좌악// 내 육체— 무참히 피 철철 흘리며 폭폭 씹으며
갈라지고// 들킬세라 쉬쉬 아껴 쟁여두었던/ 무우우우우우 우 우 우 울
소 소리/ (쉬잇! 위험해)/ 희미하게 내장을 뒤흔들며 되살이나 찰랑인다/
조그만 조그만 속삭임 소리 후아후아/ 엄마 숨 쉴 수 있어요 우린 밖으로
나갈 테야/ 백 개 이백 개 수천 개/ 수많은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의 뽀족한
말들/ 내 뭉그러진 육체의 상처를 비집고// 쪽쪽 돌아온다 랄랄랄 물소리
들들/ 엄마 우울한 엄마, 육체의 뒷에 치여 신음하는 엄마/ 불쌍해 가여워라
엄마는 매일 아프지/ 하지만 우린 상관 안 해 아이들은 상처의 계단을/
쿵쿵쿵쿵 뛰어다닌다 상처는 접히고, 쥐어뜯기고, 악화되고, 덧나고, 뭉개
지고, 딱지 안고, 오호라!/ 그러다가 길이 난다 나는 다만 상처를 맹렬히
살아냈을 뿐인데도// 계통적인 상처! 나는 살아낸 이품 안에 정착한다
-김정란, 『봄, 빛』 부분³⁰⁾

이 시에는 “빛나는 칼금”, 즉 누군가 위해 통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윤리'가 구체화되어 있다. 실존적 측면에서 '사랑의 윤리학'에는 모성과 에로스적인 욕망이 이중으로 작동한다. 에로스 속에는 시간과 죽음의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관능적 매혹을 작동하고, 생명을 잉태하려는

29) 다이낸 애커먼, 앞의 책, 161면.

30) 김정란, 『그 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네』, (주)도서출판 세계사, 1997.

윤리적 욕망을 부추긴다.³¹⁾ 관능적 욕망이 이성과의 '사랑의 윤리'를 발화한다면 시간과 죽음의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욕망은 모성적인 '사랑의 윤리'를 발화시킨다. 이 시에서 촉각은 “무참히 피 철철 흘리는” 자학적인 양상으로 의식화되어 있지만 시적 자아의 “육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개선하는 “상처의 계단”, 즉 “아이들”의 “길”을 여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사랑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육체의 뒤편에 치여 신음”하고 있는 모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남성들이 규정한 생물학적인 여성의 실존성을 개선하려는 제의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2) 자기기만의 '신체이형장애'

여성시인들 시의 촉각 이미지에서 신체의 외부 촉각의 또 다른 증세가 신체의 실존을 심리적으로 기만하는 '신체이형장애'의 양상이다. '신체이형장애'는 자신의 신체가 추하거나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는 비이성적인 인식의 정신병리이다. 이는 '신체통합성체성장애'의 대칭이 되는 개념으로 자기기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의도적이지는 않다. 행위자가 편향된 믿음으로 모순된 것들을 합리화하는 심리적인 지각이다.³²⁾ 이런 증상은 '주관적 신체'라고 부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경험과 심리적 신체 현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일치³³⁾로 인해 생긴 것이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잘못된 정보를 주어 신경과 뇌 사이의 신호를 오작동하여 만드는 감각적 지각이다. 신경조직과 감정의 관계가 상태에 따라서 변수로 작용³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여성시인의 시에서 심리적 실존과 신체적 실존의 불일치는 현실에서의 유기적인 억압이나 고통을 거부하는 심리나 혹은 자기방어의 합리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실존에 대한 트라우마로 여성의 몸을 남성화하는 김언희의

31)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시즘』, 민음사, 2008, 15면 참조.

32) 닐 레비, 앞의 책, 390면 참조.

33) 위의 책, 7면 참조.

34) 위의 책, 385면 참조.

시를 보자.

나에게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 한 자루 있네// 나에게는 뾰족하게 깎은/
 자지 하나 있네// 뾰족하게 깎은 자지, 아버지의/ 자지로 오늘도 나는/
 내 눈을/ 찌르네// 아버지, 아버지가 뺨 아이는/ 내 아이가// 아녜요
 -김언희, 「나에게는」, 전문³⁵⁾

김언희는 여성인 자신의 몸에 남근이 있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몸에 없는 남근을 있다고 믿는 의식을 환상지(phantom limb)라고 한다. ‘환상지’는 없는 신체의 부위에서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신체이형장애’의 증세이다. 신경윤리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신체가 있다고 믿는 ‘환상지’를 고통이 발생하는 근원이나 통증이 지각되는 곳으로 판단한다.³⁶⁾ 김언희의 시에서 환상지가 생물학적인 성(性)을 특징짓는 신체 부위라는 점에서 시적 자아에게 고통을 주는 근원처라 할 수 있다. 남성의 상징물인 “자지”는 “내 눈을/ 찌르”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근원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동시에 나를 억압하는 주체와 유사한 실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남근의 환상지는 자기모순과 편향된 믿음에 만들어낸 신체의 허위실존으로, 이러한 심리의 지각은 현실에서의 오랜 경험이 체화(體化)된 것이다. 나를 억압하는 타자에 대한, 사회에 대한 무의식이나 전의식의 영역에서 잠재적 상태로 머물다가 표출된³⁷⁾ 촉각 증세로, 심리현상과 신경생리학 사이에서 지각한 시적 자아의 실존성이다. 하지만 심리적 왜곡으로 나타난 허위실존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이다. 내가 만든 남근이 나를 찌르는 행위는 촉각의 의미에서 나를 억압하는 타자가 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근에 대한 욕망이 오히려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나를 내 속에 가둔다. 나의 실존성을 남성의

35) 김언희, 『뜻밖의 대답』, 민음사, 2005.

36) 위의 책, 18면 참조.

37) 주형일, 「직관의 사회학, 나의 사회학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 『커뮤니케이션 이론』 4(1), 한국언론학회, 2008. 6, 99면 참조.

영역으로 넓히고자 한 것이었으나 그런 욕망이 오히려 나를 내 속 가두는 원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억압받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합리화가 여성의 신체적 실존을 기만했을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여성임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무의식 상태의 신체적 허위실존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도덕성이나 윤리에 책임이 있을 리 없다. 의식은 뇌와 신경 메커니즘과 상호 접촉하게 하면서 도덕성을 갖게 되므로³⁸⁾, 사회의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남근이 없다는 진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허위실존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버지가 뻥 아이는/ 내 아이가// 아녜요” 라는 의미는 허위실존이 진정한 실존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신경윤리의 관점에서 환상은 현존과 부재의 양의적(ambivalent) 표상이기도 하다. 이 시는 시적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실존을 갖고 싶어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현실의 억압을 드러낸 심리의 축각 증세라 할 수 있다.

가지마다 다른 꽃이 피었네/ 아버지가 접목한 나무/ 코를 자르고 귀를 붙였네/ 귀를 자르고 발가락을 붙였네/ 아버지가 접목한 나무/ 가지마다 다른 열매가 맺혔네/ 이 가지에 양 대가리/ 저 가지에 개다리/ 주저리주저리 열렸네/ 아버지가 접목한 나무/ 짐승의 피가 섞인 나무/ 아침저녁 터럭과 눈빛이 바뀌는 나무/ 이 가지가 저 가지의 목을 감았네/ 저 가지가 이 가지의 눈을 후볐네/ 뿌리 너무 깊은 열매들/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불구였네/ 아버지가 접목한 나무/ 불구의 열매가 불구의 열매를 / 아귀아귀 따먹었네 뿌리 깊은/ 열매를 뿌리 깊은 열매가/ 으적으적 씹어 삼켰네

-김언희, 「가지마다 다른 꽃이」전문³⁹⁾

38) 닐 레비, 앞의 책, 346면 참조.

39) 김언희, 『뜻밖의 대답』, 민음사, 2005.

남근을 갈망하는 허위실존의 심리는 인간생태를 파괴하고, 종(種)을 재편성하려는 다중적 실존을 추구하는 심리로 나아간다. 다양한 존재의 신체와 촉각적으로 접목되는 ‘환상지’로 의식화된다. 이 시에서도 환상지의 원인, 즉 고통의 근원이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다. “아버지가 접목한 나무”라는 말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부장제의 질서를 의미한다. 가부장제의 질서가 나의 실존을 허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시적 자아의 신체는 “코를 자르고” “귀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양 대가리” “개다리” 등 종과 종을 넘나들며 촉각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시적 자아의 인체 생태는 남성도 여성도 인간도 동물도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신체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주도해온 사회에서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문화 등 모든 질서는 남성적 질서로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체 생태의 파괴는 남성적 질서의 부정이며,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적 실존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이다. 환상지의 현상이 현실의 억압을 표상한 것이라 볼 때 이것은 심리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힘도 단념할 용기도 차단된 상태에 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힘은 상상 속에서만 무한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허위실존으로 존재하는 나의 신체들은 억압받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옛날의 현재화이다.⁴⁰⁾ 다른 종의 촉각적 접목은 세계의 파편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촉각의 관점에서 다양한 타자와 접촉은 내가 인식하는 세계나 실존이 열려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남성 중심주의나 사회질서의 획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현 질서의 탈중심주의나 질서의 해체를 갈망하는 의식이 촉각의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정서적 기계화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의 외부 촉각이 신체의 실존으로 감각된다면 신체의 내부 촉각은 시에서

40) 위의 책, 150면 참조.

자아고갈로 인한 기억의 조작이나 감정과 신경체계의 상호작용 속에 통제되는 '자유의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유의지' 상실의 촉각 증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환자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으면서 유사한 사건을 경험을 할 때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 스트레스는 그 기억이 환기될 때마다 더욱 강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기억의 신경윤리의 증세이다.⁴¹⁾ 지속적인 기억은 내측두계로부터 이동해서 대뇌 피질 영역의 연결망으로 연결되는데 단기 기억과 응고된 기억은 서로 다른 뇌 부위에 저장되어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잃었을 때에도 오래된 사건을 회상해내는 능력은 남아 있다. 기억의 시스템은 심리 상태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허위 기억의 삽입 할 수도 있다.⁴²⁾ 기억의 증발은 나의 역사와 정체성의 증발이다. 신경윤리 차원에서 이것은 기억의 변경, 조작, 왜곡으로,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자유의지(free will)'의 상실이나 심리적 도피의 일종이다.

김혜순의 시는 과거 트라우마가 유사한 경험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 환기되는 것을 촉각의 감각으로 의식화하고 있다.

이국의 식당 화장실에서/ 어른 여자가, 아이 여자의 뺨을 때리고 있다/
벗어! 벗어! 여자는 젖은 팬티를 벗기려 하고/ 아이는 필사적으로 벗지
않으려 한다// 저 멀리 단상에 서 있다가 달려와 / 내 뺨을 갈긴 교련
선생 생각한다/ 그다음부터 나는 단상에 선 모든 사람을 경멸한다. /...(중
략)...// 석 달 열흘 우박이 쏟아지고 내가 그 우박 맞고/ 흠쳤지? 내가
감쳤지? 뺨 위로 떨어지던 손바닥//...(중략)...// 몸 안에 얼굴 패이고
허벅지 살점 부셔서 내린 채/ 빙 둘러앉은 부처들 품고/ 몇 십만 개 날개에
양 뺨 정신없이 두들겨 맞던 목탑 하나/ 검은 토네이도처럼 시커멓게/
파란 하늘에 때 맞는 소리 가득하던/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목탑 하나

41) 위의 책, 272면 참조.

42) 위의 책, 238-239면 참조.

생각난다

-김혜순, 「따귀새」부분⁴³⁾

김혜순은 유년시절에 각인되어 있는 뺨을 맞은 기억, 즉 부정적인 촉각의 기억이 성인된 후에도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환기된다는 것을 ‘기억의 신경윤리’로 의식화한다. “어른 여자가, 아이 여자의 뺨을 때리”는 촉각의 사건이 과거에 시적 화자가 받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환기한다. 이 사건은 “내 뺨을 갈긴 교련 선생”에 대한 응고된 기억, 억울하게 도둑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뺨을 맞았던 심리적 트라우마를 회상해낸다.

촉각은 ‘나’와 ‘타자’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가장 근원적인 감각⁴⁴⁾이다. 나와 타자와의 살의 접촉이 친밀한 정서로 지각될 때에는 호감을 갖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교련 선생에게 뺨을 맞은 순간은 타자와의 강렬한 결합이자 분리의 순간이다. 부정적인 촉각의 기억은 “단상에 선 모든 사람을 경멸” 하게 된, 타자에 대한 감정이 분노로 응고되게 한 원인이다. 또한 그 사건은 시적 화자를 괴롭히는 심리적 고통의 근원처다. 나를 억압하는 타자에 대한 트라우마는 타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나의 자존감까지 무력화시킨다. 이때 자신을 자학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데, “흠쳤지? 네가 감쳤지? 뺨 위로 떨어지던 손바닥”의 기억은 자신의 신체 실존성을 “몸 안에 얼굴 패이고 허벅지 살점 부서져 내”리는 자학적인 촉각으로 각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은 “억압된 덩어리와 격렬한 원시적 충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수많은 신체의 메커니즘은 의식의 직접적인 입력이나 이유도 없이도 많은 행동을 한다.⁴⁵⁾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가하는 자학적인 촉각은 시적 화자가 겪었던 굴욕적인 몸의

43) 김혜순, 『당신의 첫』, 문학과지성사, 2008.

44) 알베르트 수스만, 앞의 책, 25-26면 참조.

45) 닐 레비, 앞의 책, 41면 참조.

정체성을 조작하는 것으로, 기억의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당한 신체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체적 실존의 파괴는 결국 정신적 실존마저 포기하는 ‘자유지지’가 없는 사물화로 나아간다. “오래된 목탑”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만든 나의 허위적 실존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경윤리에서 ‘자유지지’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철학자 네넷(D. Dennett)은 ‘자유지지’ 대한 신경결정론이 ‘피할 수 없음(inevitability)’과 ‘피할 수 있음(evitability)’에 있다고 주장한다.⁴⁶⁾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신경체계는 ‘자유지지’를 상실하고, 신체의 실존적 기억을 조작한다. 자신의 고통을 은폐하고, 타자의 위협에 순응하는 자기의 사물화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상태를 조작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룰 때 자신을 사물화하게 된다.⁴⁷⁾

자신을 사물화하는 이런 촉각 심리는 심리적 신체적 실존이 남성에 의해 조종되는 ‘정서적 기계화’로도 의식화된다.

너의 손이 닿자 기계 전체가 살아난다/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에서 내려다본 밤의 뉴욕처럼/ 기계 전체에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너는 마치 경광등을 켜 앰블런스처럼/ 내 몸 안을 휘젓고 다닌다/ 고동치는 도시, 부르르 떠는 별의 골짜기/ 내 몸 속이 번쩍번쩍 한다// 그러나, 너, 착각하지 마라/ 차디찬 맥주라도 한 잔 마셔 두어라/ 너 이 기계의 서랍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서랍 속에는 너와 같은 모양의 쇠공들이/ 백 개 천 개 들어 있다/ 모두 불쌍한 사랑 기계 자체의 물건들이다// …(중략)…// 기계 혼자서 자기 보존 프로그램대로/ 움직여가는 것일 뿐/ 너만을 모셔둘 곳은 이 기계 내부 어디에도 없다

-김혜순, 「다시, 불쌍한 사랑 기계」부분⁴⁸⁾

46) 장대익, 「뇌 탓이오?: 신경윤리학의 쟁점들」,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08, 9, 144면 참조.

47) 닐 레비, 앞의 책, 117면 참조.

48) 김혜순,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문학과지성사, 2000.

이 시에서 여성의 신체 실존은 기계화되어 있다. 시적 여성은 타자인 “너의 손”이 닿아야 “기계 전체가 살아”나는 실존적 존재로 의식화되어 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타자의 의지에 의해서 영위되는 여성의 신체 실존이 “불쌍한 사랑 기계”에 비유되어 있다. 나와 타자가 상호소통 관계 아닌 일방적인 소통의 접촉일 때는 나의 세계는 내가 아니라, 타자가 만들어 나가고 결정한다. 타자와의 촉각 지각 속에는 나의 ‘자유의지’ 같은 것은 없다. 신경윤리의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억압은 행위자가 자기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제압한다.”⁴⁹⁾ 반복적인 통제는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자아가 고갈되어 저항의지도 사라지게 한다. 사회를 주도해나가는 상대의 완전한 부정은 나의 정체성을 손상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능동적일 수 없다. 뇌 메커니즘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억압하는 주체에게 순응하는 자기를 기계화하는 방식으로 변형된다.

하지만 김혜순은 신체적 실존과 심리적 실존의 괴리를 통해 여성에게도 고유의 실존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의지’로 여성을 ‘정서적인 기계’⁵⁰⁾로 만들어나가는 남성에게 스스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 보존 프로그램”을 가진 존재가 여성이라는 것을 두 성의 촉각 관계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자기통제상실의 ‘강박장애 스펙트럼 질환’

시에 나타나는 신체 내부 촉각의 또 다른 증세가 대체 물질로 신경체계를 속이는 ‘강박장애 스펙트럼 질환’의 의식화다. 이 증세는 뇌의 편도체 이상이나 신경체계 손상 없이 자기통제를 상실한다. 강박증이나 병적 도벽, 발모광, 음식, 알코올, 섹스, 약물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보상을 주는 행위의 몰입하면서 중독에 빠진다. 진정한 “자기는 자기-통제의 자기”이다.⁵¹⁾ 자신의 욕구가 현실

49) 위의 책, 377면 참조.

50) 위의 책, 117면 참조.

51) 닐 레널, 앞의 책, 302면 참조.

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중독에 빠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유의지’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의도하건 하지 않던 간에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의 위배를 하게 된다.

시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이런 증세는 자신의 존재성이 현실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선택하게 되는 신경윤리의 측면이다. 이런 양상은 자존감의 약화나 ‘자유의지’ 상실로 선택한 약물로 인해 심리적 실존을 포기하거나 실존을 무화하는 양상으로 의식화된다.

독약품을 하층에 간 시험관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화학반응에 쓰이는
살덩어리다/ 나는 몸을 뒤흔다// 오른팔이 떨어져나갔다 다시와서/ 목에
붙었다 옆구리에 붙었다/ 독약 먹은 나는 아편쟁이처럼 늘어져/ 하, 내
팔이 재미있네// 벌레 한 마리가 시험관 유리벽을 기어올라간다/ 멈칫
서더니/ 추수를 곤두세우더니/ 날랜 걸음으로 내려가 황황 달아난다/ 오른
팔을 배꼽에 붙이고 나는/ 하, 그놈 독약 맛을 모르는구먼.

-이연주, 「벌레를 붙잡히 여검」부분⁵²⁾

이연주는 여성으로서의 실존성 상실을 독약에 중독되어 환각상태에 이른 촉각의 증세로 의식화한다. 시에서 시적 자아의 실존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독약”에 “화학반응”을 하는 촉각적 환상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독성을 가진 화학약품은 피부만 손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마비시켜, 뇌가 정상적인 인지를 하는 데에 방해를 한다. 독에 중독된 시적 자아는 이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오른팔이 떨어져나갔다 다시와서/ 목에 붙었다 옆구리에 붙었다” 하는 신체의 현상은 중독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환상은 정신적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잠재적인 원인들이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⁵³⁾ 그리고 신체의 해체로 쾌감과 고통을 결합시키는 시적 자아의 사도마조히즘 성향은 현실에서 경험한 고통이 반영되어 있다.

52) 이연주, 『속죄양, 유다』, 세계사, 1993.

53) 위의 책, 42면 참조.

환상 속에서 신체적으로 자신을 자학하고, 확대하는 촉각의 고통은 스스로 생물학적 존재성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는 남성이 만든 자연적 사회적 여성의 실존성 부정이다. 메를로 폰티가 말했듯 신체는 자연적 자아이고 실존의 흐름이다.⁵⁴⁾ 일반적으로 절단된 신체 부위가 있는 것으로 감각하는 환상지가 현실에 없는 실존을 만드는 것이라면 신체의 절단은 실존을 무화(無化)하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의 촉각은 고통보다는 쾌감을 즐기는 양상으로 지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신경윤리의 관점에서 감각능력의 상실로 볼 수 있다. 감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증세는 타자와 나의 관계를 촉각으로 표상한 것인데 타자와 소통되지 않거나 혹은 타자와 소통되지 않음을 드러낸 심리적 촉각이라 할 수 있다. 감각능력의 상실은 촉각의 관점에서 타자를 인식하는 경계를 가지지 않음으로써 나의 자아도 없을 뿐 아니라 타자도 없는 세계의 인식이다. 나와 현실 모두를 부정하는 촉각 심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 자율성을 손상시키는 방식에는 갈망과 금단의 고통이 잇따른다. 중독을 만드는 특성이 중독으로 이끈다.⁵⁵⁾ 자기 통제력이나 의지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아고갈이 그 원인 중 하나다.⁵⁶⁾ 그것이 현실이든 사람이든 간에 타자와의 불통(不通)은 자신의 자존감을 약화시킨다.

현실과의 불통 혹은 타자와의 불통이 중독으로 이끌고, 자신의 실존을 파괴하며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위배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아래 시에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갔지/ 그 길/ 더럽고 악취나고 부패로 질척거리는/ 목젓을 넘어오는
 토악질들/ 분노로써 삼키며// 갔었네./ 실어증의 길// 웬일일까/ 이젠
 방법창이 무서워/ 웬일일까, 이젠/ 거울 속 내 옷이 무서워 눈도/ 코도
 입도 손가락이 다 무섭네.// 1992년 8월 25일/ 모르핀 치사량으로 죽은
 내 름똥/ 그 먼도날, 팔목을 자르거나, 아니, 어찌면/ 내가 벌거숭이로

54) 메를로 폰티, 앞의 책, 269면 참조.

55) 닐 레비, 앞의 책, 310면 참조.

56) 위의 책, 312면 참조.

태어나던/ 날, 내 忌日// 당신이라는 대명칭을/ 탄생의 머릿돌로 세웠네//
 길목엔 붉은 고추 걸어놓고/ 검정 숲 검댕이도,
 -이연주, 「탄생의 머릿돌에 관한 회상-위험한 시절의 진료실·6」부분⁵⁷⁾

시적 자아는 “악취나고 부패로 질척거리는” 현실로 인해 “실어증의 길”에 들어서 있다. 언어장애를 겪는 “실어증”은 신경체계의 오작동이다. 여기서 감각능력이나 말에 고착되는 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로 생긴 심리적 장애라는 것이 중요하다. 타자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타자와의 지각이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소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울 속 내 옷이 무서워 눈도/ 코도 입도 손가락이 다” 무서워 할 만큼의 자기 실존의 공포로 이어진다. 중독으로 인해 실존적 자율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중독으로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행동유도성(affordance)을 갖고 있다. 행동유도성은 대상의 어떤 속성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강박증을 유발한다.⁵⁸⁾ 갈망과 금단이 중독의 자율성을 손상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강박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⁵⁹⁾ 시적 자아가 “모르핀 치사량”으로 인해 “팔뚝 자르”는 촉각적 행위를 한 것이 그것인데 현실에서 인정받고 싶은 내 욕구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자살’이라는 반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체제 내에서 생명윤리를 위배한 것이다. 악의는 없지만 환각으로 인한 의식의 회피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⁶⁰⁾ 이 시에서의 촉각 환상은 현실로 인한 분노가 실존의 혐오로 이어지고, 심리적 도피처로서의 중독이 ‘자유의지’를 상실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57) 이연주, 앞의 책.

58) 위의 책, 297-299면 참조.

59) 위의 책, 310면 참조.

60) 위의 책, 365면 참조.

3.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시인들 시의 촉각 이미지에겐 신경윤리의 증세가 의식화되어 있다. 신체의 외부 촉각이든 신체의 내부 촉각이든 여성의 실존이 반영되어 있다. 촉각이 '나'와 '타자' 혹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실존의 양상이나 의식을 표출하는 감각인 만큼 남성 사회 내에서 비주체로 살아온 여성의 부정의식이나 트라우마 등의 정신 병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신경윤리의 관점으로 본 여성시인들 시에서 촉각 증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에서 촉각의 양상은 신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려는 욕망에 시달리는 '신체통합정체성장애'로 나타난다. 이는 모체에 자학적인 고통을 가하는 촉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현실의 고통을 다른 감각체계로 보상하려는 심리이다.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고통의 주관성'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희생양의 성격을 가진 '제의적인 심리'이다. 어머니 세대의 희생을 통해 미래의 여성 실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갈망을 의식화한 것이다.

둘째, 시에서 촉각의 양상은 심리적 실존과 신체적 실존의 불일치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이형장애'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남근이나 다중적인 허위실존을 만들어내는 촉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고통의 근원이 되는 트라우마가 남성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남성적 주체성을 선망하는 양가적 여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남성이 만든 수직적 세계를 부정하고, 탈중심주의나 혹은 다중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여성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에서 촉각의 양상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난다. 이는 성인된 후에도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환기되는 '기억의 신경윤리'나 정서적인 기계화가 되는 촉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심리적 트라우마가 여성의 자아를 무력하게 만드는 측면을 보여준다. 남성적 질서 속에서 '자유의지'를 박탈당하도록 훈육된 여성의 심리적 실존과 신체적 실존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시에서 촉각의 양상은 대체 물질로 신경체계를 속이는 ‘강박장애 스펙트럼 질환’로 나타난다. 이는 신경체계로 약물로 속이는 촉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의 존재성이나 실존성이 현실에서 거부당했을 때의 자존감의 약화와 ‘자유지의’ 상실을 보여준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성들의 심리적 실존과 신체적 실존의 병리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성시인들이 촉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간에 그동안 남성적 질서 내에서 형성된 여성들의 심리적 실존과 신체적 실존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들은 그동안 촉각이 하위감각이나 비속어로서 남성을 공격하는 정치언어와는 다른 의미이다. 여성을 정신 병리로 몰아넣은 남성들에 대한 은밀한 집단 박해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집단적인 박해의 한 전형이다. 남성이 규정한 생물·사회학적인 여성이데올로기의 거부와 남성적 질서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반사회적인 의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좋은 사회란 현실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환체계(systeme d'échanges)’ 때문인데⁶¹⁾ 그동안 남성들은 성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적 실존의 강화는 더욱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적 실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촉각에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윤리 관점의 정신 병리는 다른 감각의 시연구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신경생리, 정서와 관련이 있는 촉각만의 특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촉각 이미지, 신경윤리, 감성적 감각, 윤리적 감각, 자학적 촉각, 여성시

61) 위의 책, 27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언희, 『뾰박의 대답』, 민음사, 2005.
김정란, 『그 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네』, (주)도서출판 세계사, 1997.
김혜순,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문학과지성사, 2000.
———, 『당신의 첫』, 문학과지성사, 2008.
이연주, 『속죄양, 유다』, 세계사, 1993.

2. 논문 및 국내·외 단행본

- 김남이, 「촉각의 현상학과 이리가레의 여성주체성」, 『여성 이론』31, 도서출판 역이년, 2014. 11, 118-138면.
박한라, 「김경주 시에 나타난 감각 운용 연구」, 『한민족어문학』78, 한민족어문학회, 2017, 345-364면.
서안나, 「백석 시에 나타난 감각에 관한 연구-촉각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42, 한국시학회, 2015. 4, 141-176면.
이길우, 「현상학의 감정윤리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8집, 한국현상학회, 1996, 143-168면.
여태천, 「정지용 시어의 감각과 주체의 욕망」, 『한국 문화와 저널』6, 한국어 국제학술 포럼, 2004, 69-84면.
장대익, 「뇌 탓이오?: 신경윤리학의 쟁점들」,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08. 9, 131-151면.
정진경, 「현대시에 나타난 촉각 이미지 연구」,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문학회, 2018, 5, 171-201면.
주형일, 「직관의 사회학, 나의 사회학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 『커뮤니케이션 이론』 4(1), 한국언론학회, 2008. 6, 99, 77-113면.
최은아, 「감각의 문화사 연구-촉각」, 『카프카 연구』제19집, 한국카프카학회, 2008, 159-187면.

- 한수영, 「감각과 풍경-백석시에 나타난 감각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47, 현대문학이론연구회, 2011.
- 함돈균, 「권태의 색수열리티, 불모성의 시 쓰기」, 『시작』16(2), 천년의 시작, 2007, 76-91면.
- 닐 레비, 신경인문학 연구회 옮김, 『신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 바다출판사, 2011.
- 다이낸 애커먼, 백영미 옮김, 『감각의 박물관』, 작가정신, 2004.
- 데릭 홀, 김윤택·서주현 옮김, 『인간의 몸』에코, 2007.
-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 루돌프 슈타이너, 양익관·다카하시 이와오 옮김, 『초감각적 세계인식』, 물병자리, 2006.
- 르네 지라르, 김진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 미나토 지히로, 김경주·이종욱 옮김, 『생각하는 피부-촉각문화론』, 논형, 2014.
-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역주, 『영혼에 관하여』, 궁리출판, 2010.
- 알베르트 수스만, 서영숙 옮김,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 2007.
- 에드문트 후설,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1-3, 한길사, 2009.
-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시즘』, 민음사, 2008.

[Abstract]

The tactile sense of women's poetry in terms of neuroethics

Jeong, Jin-kyung

This study examined tactile images shown in the poems written by female poets since the 1980s from the perspective of neuroethics. As the combination of neurophysiology and ethics, neuroethics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rvous system and the mind. In sensory terms, neurophysiolog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actile sense. In view of this, masochistic and sadistic tactile images that have appeared in female poets' poems since the 1980s are noteworthy. These differ from the tactile images that represented maternal intimacy or the ethics of love that responded to discourses on male dominance before the 1980s. In terms of presupposing the emotions that are formed between "me" and "others", the tactile sense is highly likely to express the consciousness and psychopathology of women who have lived as "the sexual other".

The first neuroethical aspect of the reviewed poems appears as "physical integration identity disorder" in which women struggle with the desire to continuously remove a portion of their bodies. This disorder is shown as a tactile aspect of inflicting masochistic pain on the mother's body, which is based on the psychology to compensate for the pain caused by feminine realities using the tactile system. The second neuroethical aspect of these poems is exhibited as "body dysmorphic disorder" that occurs due to discordance between psychological and physical existences. This disorder is portrayed as a tactile aspect of creating the penis or multiple false existences.

This implies that the root of pain is men, and at the same, reflects women's ambivalent desire that envies masculine independence. The third neuroethical aspect of these poems is exhibited a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which psychological traumas cause repeated stress. This disorder appears as a tactile aspect of "the neuroethics of memory" in which traumas are recalled whenever having similar experiences or emotional mechanization, and this aspect indicates how lethargic women can become due to psychological trauma. The fourth neuroethical aspect of these poems is shown as "obsessive-compulsive spectrum disorders" which deceive the nervous system using alternative substances. This disorder appears as a tactile aspect of deceiving the nervous system with drugs, which signifies that the loss of "free will" can impoverish women's psychological and physical existences.

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e tactile image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neuroethics connote the psychopathology of women who have lived as the non-subject of our society whose subject has been men. In the reviewed poems, women's psychological and physical existences that had thus far been formed within the manly order can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their tactile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different implication from the conventional evaluation of tactile sensation as a political language that attacks men using a lower-level sense or slangs. Moreover, in terms of poetic consciousness, the study's results are also significant in terms that the exclusive characteristic consciousness of the tactile sense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other senses.

【Key words】 : tactile sense image, neuroethics, Emotional sense, An enemy sense, A psychological second, women's poetry

정진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50414)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정길 91-30

전자우편: altamira-p@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8월 1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8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